

A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117th Professional Engineer Packing

## 제117회 포장기술사 최종합격자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한영)는 제117회 기술사 자격시험에서 9명의 포장기술사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탄생한 포장기술사는 ▲김흥묵 대상(주) 차장, ▲도영민 (주)미미박스 리더, ▲박창진 동서식품(주) 연구소 대리, ▲소광영 대우인쇄교역 팀장, ▲이종대 (주)연우 차장, ▲이태훈 한국컨테이너풀(주) 선임과장, ▲정준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사원, ▲한병희 롯데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홍종찬 (주)HTI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으로, 이로써 국내 포장기술사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

포장기술사는 포장분야의 최고 기술전문사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포장의 기술적 발전과 적합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 포장기술사는 (사)한국포장기술사회를 중심으로 국내 포장문화 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제117회 포장기술사 합격자들과 만나 포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편집자 주 -



## “간편성·고기능성 부여한 스마트 포장 개발에 매진”



김 흥 목

대상(주)식품BU식품연구소  
패키지팀 차장

**Q. 먼저 제117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신입사원 시절에 포장 관련 업무를 배우면서 기술직에서의 최고 인정 자격인 기술사 자격증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포장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기분 좋고, 앞으로도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처음으로 포장 업무에 맡을 디딘 것은 제과회사였습니다. 그라비아인쇄, 오프셋인쇄, 박스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종합식품회사에서 다양한 식품군에 대한 포장 개발 업무 및 품질 개선, 표준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포장 분야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지식 습득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포장 업무와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포장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넓히고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만나보고 인맥을 확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지식 교류를 통하여 조금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시험을 앞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였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책을 쌓아두고 공부를 하려니 졸음도 밀려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암기도 잘 되지 않아서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전문 서적의 이론을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동안 해왔던 실무 경험과 이론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포장 이론을 기초로 하여 실제에 적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고 더 많은 실무 경험을 쌓아서 포장기술 분야에서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포장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져서 포장의 안전성과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면서 포장폐기물은 저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와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편의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간편하면서도 기능이 부여된 스마트한 포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장 관련 단체와 동종 기업들과 정보 교류를 통하여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포장전문가로서 많은 포장인들과 소통할 것”



도 영 민

(주)미박스 QA팀 리더

**Q. 먼저 제117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장 관련 일을 하면서 모든 분야를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었지만 기술사를 준비하면

인터뷰

서 많은 분야를 공부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함께 준비한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응원해준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생활용품 포장재 개발, 식품 포장재 개발, 화장품 상용성 테스트를 주 업무로 하는 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6월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고 있는데, 품질 부서 소속이지만 개발팀이 없는 관계로 개발 단계에서의 포장 선택 및 추가 업무들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첫 회사의 팀장님께서 먼저 포장기술사가 되신 후 소개해 주셔서 기술사 시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을 채운 뒤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분야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답안으로 적어내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첫 시험을 2015년에 응시하고 난 뒤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였고, 아이를 키우면서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합격하였고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기술사 취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통하여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면서 한국 포장산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유연성과 지속가능성 실현한 포장 개발”



박 창 진  
동서식품연구소  
포장기술팀 대리

Q. 먼저 제117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먼 훗날 제 분야에서 당당한 전문가가 되어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대학교 1

학년 때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동서식품 연구소의 포장연구개발자로서 이번 기술사 합격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동서식품의 국내 최초 스틱형 커피믹스 개발이 커피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듯이 저도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장기술 개발을 위해 새롭게 매진할 계획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한 것을 이해해주고 격려해 준 아내와 딸, 그리고 끝까지 응원해 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2009년에 패키징학과 졸업 후 동서식품에 입사하여 약 10년 동안 연구소 포장기술팀에서 포장연구개발 업무와 커피공장에서의 제품포장 공정 및 생산관리 업무를 했으며, 최근에는 다시 연구소에서 친환경 포장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용 협동로봇 등을 이용한 포장공정 자동화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입사 이후 약 10년 동안 포장연구의 개발 업무를 해 오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갈증을 느

끼게 되었습니다. 포장전문가그룹인 포장기술사회의 기술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회사에서 겪은 실무 경험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더하여 스스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필기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당시 한창 유행하고 있던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옮기는 것이 걱정되어 아내와 딸을 처가로 피신시키고 2주 동안 독방에서 고열과 근육통과 싸우면서 힘들게 공부했던 것이 가장 생각납니다. 공부 초기에 아프기 시작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은데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아 여태까지 쏟은 열정과 시간이 너무 아까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포장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유연성(Flexibility)’ 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찾고 있으며, 신제품의 수명주기는 매우 짧기 때문에 어떠한 소비자 니즈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포장재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다양한 종류와 규격의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포장공정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점보다 부정적인 점이 부각되어 포장이 오히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환경부하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는 실천과 포장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포장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장의 위기이자 기회인 이 시점에서 모든 포장인들이 한마음으로 이러한 기술들의 연구개발을 해야 하며 저도 한국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종이의 복합화 및 지속가능성을 연구”**



소 광 영  
대우인쇄교역 프리프레스팀 팀장

**Q. 먼저 제117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몇 년간, 정확히 말해 4년여 동안 꿈꾸며 기대하고 그리고 견뎌왔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떠올라 기쁨에 앞서 벅

찬 감격을 맞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와 배려로 조용히 성원해준 가족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동기를 부여해준 사랑하는 아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지기 및 패키징 인쇄관련 기업에서 프리프레스(Pre-Press) 팀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큰 틀에서 인쇄전 공정을 지칭하며, 세부적으로는 지기구조 개발과 적정구조 제작 업무부터 디자인 및 CTP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길다면 긴 시간동안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과 열의가 부족하여 알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장기술사를 목표로 공부하면서 제가 일하는 분야가 포장이라는 큰 그릇의 작은 부분에 불과함을 느끼며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아무런 정보와 관련 책도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구글링과 유튜브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포장기술편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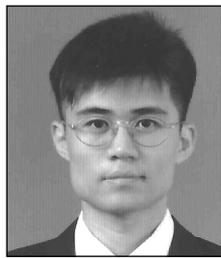
인터뷰

라는 관련 책을 알게 되어 국회도서관에서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엄청난 두께와 내용에 압도되어 책을 덮고 밖에서 고민했던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지기 구조의 개발은 상당히 재미있고 성취감도 있는 매력 있는 업무라 생각합니다. 힘없는 한 장의 종이가 구조화 되었을 때, 큰 하중과 충격에도 견딜 수 있으며, 또한 심미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 된다는 것은 지기구조를 공부하기엔 충분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이에 이종 소재와의 복합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기술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포장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



이 종 대  
(주)연우설비혁신팀 차장

Q. 먼저 제117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항상 포장업계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최고의 포장 전문가 그룹인 ‘포장기술사’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 도전에 합격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기술사라는 위치에서 잘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시험 준비과정에서 같이 준비한 동기 여러분과 격려와 도움을 주신 선·후배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준비과정에서 저녁과 주말시간을 나에게 배려해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식품 및 생활용품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이생

테크노팩에서 포장재 설계개발로 약 9년간 근무하였으며, 종합식품회사인 주식회사 샘표 포장개발팀에서 포장개발업무를 진행하며 다방면의 포장재 개발을 약 9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화장품 포장재 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연우에서 화장품 1차 포장재를 적재·운송하는 2차 포장재 개발 및 사양을 설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포장업계에 처음 입문할 때만 하더라도 포장에 대한 기술이 단순히 ‘깍뎀기를 만든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장업무에 집중하며 선진포장기술을 접하면서 포장기술이 다른 학문에 비하여 넓고, 때로는 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서 실전에서 배운 포장지식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며, 주위 선·후배 분들의 도전과 성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시험에 도전할 생각을 하면서 처음 교육에 참가하고는 방대한 교육 자료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회사업무와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출퇴근하던 차량고장으로 지하철을 타게 되는 시점이어서 나름 정리 자료와 교재를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고 조금이나마 매일 보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으나 배움의 자세로 돌아가 학부 때의 열정을 느꼈던 건 오랜만의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열정이라는 인자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포장업계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과 다방면의 포장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었는데, 이번 포장기술사 준비과정에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사 합격점이 60점인 이유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충고를 마음에 새겨두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움의 자세를, 그리고 선·후배님들과의 다양한 교류로 포장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목별 표준화된 포장방식 개발”**



이 태 훈

한국컨테이너풀(주)  
생산SCM추진본부선임과장

**Q. 먼저 제117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장과 관련한 최고의 기술자격인 ‘포장기술사’에 합격하며 그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처럼 간절

하게 원하며 공부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도움주시고 조언해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고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한국컨테이너풀(주)에서 13년차 선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중장비 관련 업계에 표준화된 용기(Container)를 제안하고, POOLING방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장뿐만 아니라 업계의 SCM에 관련된 물류(운송, 창고, 인력 소싱, 판매 등)의 종합적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저는 포장과 물류에 관련된 실무자들과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동안은 제 주위의 포장, 물류 각 분야의 파트너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전문화 되어서 보다 신뢰감 있고, 직접 현장에서 솔루션을 제안하는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오던 차에 회사에서 포장기술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세 아이를 둔 가정의 가장이자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필기시험 때 아내가 만삭의 몸으로 저를 지원해 주었고, 올해 면접시험 때에는 세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에게 온전히 저녁시간과 주말 시간을 할애해주는 아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고객의 요구(NEEDS)가 점점 다양화됨에 따라 산업은 지속적으로 다품종, 소량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업종의 아이템의 공통점을 찾아 포장을 제안하는 것은 포장비, 물류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친화적입니다. 이처럼 업계의 동일품목의 공통을 찾아 표준화된 포장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제가 가진 목표이자, 나아가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신입 포장기술사로서 각 분야의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는 자세로 항상 스스로를 업데이트 하는 기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포장기술서비스 수행”



정 준 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기획홍보부

Q. 먼저 제117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라는 기관에서 식품기업의 포장기술 애로를 해결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기업은 영세한 곳이 많아 포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께 포장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개선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다양한 기업 니즈에 비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미미하여 포장분야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주변 선배 기술사분들의 권유와 조언도 있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제가 거주하는 곳이 지방이다 보니까 기술사 스터디를 위해 매주 주말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꼬마아이들을 아내 혼자 독박으로 육아를 맡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앞으로도 기업 니즈 맞춤형 포장기술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배운 지식을 심분 활용하여 기술사로써 부끄럽지 않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 및 패키징 개발”



한 병 희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책임연구원

Q. 먼저 제117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기술사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며 새삼 이전 기술사 선배님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며 짧은 개인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시험을 신청하고,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합격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식품연구소의 포장연구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내용물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이 있는 회사에 다니다 보니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의 소재와 파우치, 케이스, 캔, 병 등의 형태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구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오면서 8년 이상 패키징 업무를 하면서 많은 생각과 공부를 하며 알게 모르게 축적된 지식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포장기술사 선배님들이 있어서 기술사 시험에 대한 막연한 계획은 있었으나 그러한 생각을 계기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막막했지만, 지나고 나니 이 또한 좋은 경험이라 생각됩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말에 결혼을 했는데 시험 핑계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못 가진 것이 미안하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앞으로 가정생활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그동안의 경험과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이나 패키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홍 종 찬  
(주)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지난 1988년부터 산업설비와 포장 기자재 수출입 업무를 맡아 왔으며 유럽의 첨단 산업의 한국 대리점 업무 수행 중입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지난 30여 년간 식품, 화학, 철강, 제약, 화장품 등 다방면의 포장 설비와 포장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무에서 겪어온 경험을 보다 체계적인 지식 습득으로 포장 노하우 정립하고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포장 전 분야에 대한 공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시험 2주일 전부터 필기로 연습을 하는 것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손가락에 통증이 오더니 삼일 쯤에는 손목, 그리고 나흘이 지나보니 팔 전체에 통증을 느껴 늦은 나이에 공부라 쉽지가 않다는 사실과 공부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이제 포장기술사란 전문가의 위치에 서서 현재 세계적인 환경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과 환경오염이란 주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이미 발생한 쓰레기 처리문제 이전에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하고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그간 쌓아온 해외의 포장 사업 공급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